

김홍업씨 무안·신안 보선 출마하나

〈DJ 차남〉

민주-우리-통합모임 연합공천 가능성 “4·25 재보선 범여권 대통합 전기 마련”

통합신당 추진의 주도권을 놓고 범여권 4개 정파간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월2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범여권이 연합공천을 통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통합신당 창당에 앞서 범여권이 연합공천을 성사시켜 4·25 재·보선에 선 대상을 무안·신안과 경기 화성시와 대전 서구를 등 3곳.

통합신당 창당에 앞서 범여권이 연합공천을 성사시켜 4·25 재·보선에 선 대상을 무안·신안과 경기 화성시와 대전 서구를 등 3곳. 이 가운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오는 4월 25일 치러지는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사진) 전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출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부이사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민주당-열린우리당-중도통합모임이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의 연합공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현재의 지지율로 무안·신안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 여기에 통합신당을 이끌 연합공천이라는 명분은 당 지도부에 부담이 적다. 따라서 김 전 부이사장이 출마 결심을 굳힌다면 연합공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당 정대철 고문은 지난 15일 저녁 범여권 원내중진모임에서 “오는 4월 재·보궐선거가 대통합의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범여권이 통합의 전단계로 연합공천과 같은 공동대응 전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도 19일 “연합공천도 열려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임종석 송영길 의원,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이낙연 의원, 국민중심당 신국환 공동대표 등도 ‘제3차대 신당’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4·25 재보선 연합공천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곤혹스럽다. 상향식 공천제가 자리잡은 상황에서 DJ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김 전 부이사장에게 공천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DJ의 차남인 김 전 부이사장과 치열한 경쟁전을 펼친다는 것도 부담이다. 당 일각에서 연합공천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단은 두고 보자는 신중한 입장이다.

연합공천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정치일정상 늦어도 선거할 달 전인 3월 하순에는 후보자가 결정돼야 하지만, 민주당이 재·보선을 22일 앞둔 4월 3일야야 전 당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연합공천 문제가 책임있게 논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여론도 만만치 않다. 김홍업 전 의원에 이어 김홍업 전 부이사장이 무안·신안에 출마한다는 점에 대해 그리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대전 서구에서 뛰고 있는 심대

평 전 충남지사가 여론과의 통합논의 자체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변수다.

한편 김홍업 전 부이사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무안·신안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구지하철 참사 4주기 한나라당 강재선 대표와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등이 이날 대구시민회관에서 열린 대구지하철 참사 4주기 추모식에 참석,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협뉴스

“J프로젝트 등 수익모델 창출에 최선”

이상면 전남도 정부부지사

“개발에서 항상 뒤처진 고향의 우울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경험과 인맥을 풀가동해 전남경제 살리기엔 진력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이상면(52·사진)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79년 의환은행에 들어간 후 해외투자 업무를 전담해온 이 정부부지사는 “금융권 경력을 충분히 살려 기

업유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정부부지사는 당면 최대현안으로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 대회 준비와 기업유치를 꼽았다. 그는 “당장 오는 7월 F1대회 경주장을 원만하게 착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투구하겠다. 또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도시(J프로젝트) 투자자와 기업유지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업무방향을 소개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친환경농업 육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 역점시책도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J프로젝트를 비롯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전남의 여건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훌륭한 ‘컨셉’이라고 공감을 표시한 이 정부부지사는 수익모델 창출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름길은 수익 보장이다. 보다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기업들이 투자의 손길을 뻗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랜



금융계 생활을 통해 꿰뚫고 있는 기업들의 속성을 기업유치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30년 가깝도록 금융계에 몸 담았던 이 정부부지사는 광주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외환은행 해외증권담당·홍콩지점 부지점장 등을 지냈다. /박지경기자 unipark@

광주일보 2007 테마 이젠 實利다

<13> 전남대·조선대생 경쟁력 있나

전국 하위권 맴돈 취업률 언제까지 여건 탓 할건가

명실공히 광주·전남지역 대학을 대표하는 전남대와 조선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기준으로 전남대는 47.6%, 조선대는 52.4%다.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인 67.3%에 못 미칠 뿐 아니라 광주지역 4년제 7곳과 전문대학 7곳 등 14곳 대학의 평균 취업률 71%에도 턱없이 모자란 비율이다.

47.6%의 취업률을 기록한 전남대의 경우 각 단과대학별 취업률을 들여다보면 의대(96.7%)·치대(91.7%)·약대(91.2%)·간호대(83.8%)·사범대(59.3%) 등 취업이 잘되는 일부 단과대가 그나마 학교 전체 평균치를 끌어올린 셈이다. 농대(37%)·경영대(35.3%)·자연대(32.9%)·사회대(30.1%)·법대(15.7%) 등은 10~30%에 그쳤다.

대기업 취업률 5.5%에 불과

취업의 질도 문제다. 조선대의 취업률은 52.4%이지만, 막상 이들 가운데 임시직이나 시간제 일용직을 뺀 정규직 취업률은 44.3%로 8.1%포인트나 떨어진다. 또 대기업 취업률은 5.5%에 불과했다.

물론 취업률이 대학생들의 실력이나 경쟁력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전남대 졸업생의 10.6%, 조선대 졸업생의 4.1%만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모두 취업전선에 뛰어든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취업률은 분명 학생들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임에는 틀림없다.

전남대와 조선대 관계자는 저조한 취업률의 이유로 흔히 ▲지역 내 취업가능한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다수 학생이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면서 다소 취업이 늦어지더라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외부 탓으로 돌리곤 한다.

그러나 여건이 비슷한 원광대(71.5%)·경북대(65.7%)·동아대(64.1%)·강원대(62.8%)·부산대(59%)·충북대(57.5%)·충남대(57.3%)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전남대 취업지원기관인 종합인력개발센터가 재학생 2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업준비 현황’은 저조한 취업률이 결코 외부 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공무원·공기업 등만 선호

취업 희망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 공무원 33.6%, 대기업 25.2%, 중소기업 19.8% 등 10명 중 8명 가량이 좋은 직장을 잡기를 원했다.

하지만 취업 준비 시기를 묻는 질문에 ▲1학년 11.1% ▲2학년 31.7% ▲3학년 49.9% ▲4학년 7.3% 등으로 3학년 이후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무려 57.2%에 달했다. 기업체 채용 기준 토의 점수인 70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비율도 26.8%로 응답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수 조사에서는 ‘없다’고 답한 학생이 55.5%로 반을 넘었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눈 높이는 높지만 막상 취업준비는 극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자격증 있는 학생 절반도 안돼

김은일 전남대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은 “많은 학생이 ‘지방대생은 소외를 받는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취업 준비를 소홀히 하면서도 자신의 실력보다 나은 직장을 선호하는 게 문제”라며 “학생 개개인의 취업경쟁력 점수 환산 등 학교 측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내실있는 취업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전남대와 조선대의 저조한 취업률은 자신의 실력과 취업시장 변화 등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꿈만 좇는 학생들의 의식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전남대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사진>

합숙교육 첫 재수생 모집

합숙교육의 장점

- 1인 1교사 (1:1)
- 24시간 24시간
- 24시간 24시간

합숙교육 첫 재수생 모집

합숙교육의 장점

합숙교육의 장점

합숙교육의 장점

- 1인 1교사 (1:1)
- 24시간 24시간
- 24시간 24시간

합숙교육 첫 재수생 모집

합숙교육의 장점

합숙교육 첫 재수생 모집

합숙교육의 장점

합숙교육 첫 재수생 모집

합숙교육의 장점